

전남도, 전복·민물장어 169t 소비 촉진...어가 지원 총력

4~6월 10억원 투입...온라인 할인·단체급식 공급 확대 수출기업 육성·방콕 식품박람회 참가...해외 판로 개척

전남도가 전복과 민물장어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

온라인 할인전과 단체급식 공급, 해외 시장 개척, 식품기업 협업 상품 출시까지 묶여 수산물 공급 불안을 완화하고 어가 경영난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6

월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전복과 민물장어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소비촉진 및 민생회복 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 소비 물량은 총 169t으로, 전복 162t과 민물장어 7t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복과 민물장어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어가의 출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전남도는 단기 소비 확대와 중장기 판로 다변화를 함께 추진해 수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설 명절 기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온라인 할인전을 열어 전복 4t과 민물장어 3.7t을 판매했다.

또 지난 3월 17일에는 전복 특화메뉴 9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복 70t 소비 기반을 마련했고, 3월부터 4월까지 민생회복 전복 소비촉진 상생캠페인을 통해 전복 2.3t 판매를 지원했다.

20일부터는 가정의 달을 겨냥한 전복·

민물장어 소비촉진 상생캠페인에 들어간다. 예산 1억원이 투입되며, 남도장터 쇼핑몰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할인율은 총 30%로, 도비 15%와 남도장터 15%를 각각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긴급 소비 촉진 지원도 병행된다. 4억 1000만원을 들여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공급 단가 할인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와 함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지원도 추진한다.

산지 물량을 시장에 신속히 연결해 소

비를 늘리고 출하 적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출 기반 확대에도 나선다. 3억 7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초보 수출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마케팅, 물류비를 지원하고,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방콕 국제식품박람회(THAIFEX)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국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식품기업과의 협업 사업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5월 중 영오푸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산 슬라이스 전복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는 1억 2000만원이며, 신제품은 10만개, 7t 규모로 생산된다. 전남산 전복을 활용한 제품을 대기류 유통망에 올려 소비 저변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복과 민물장어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동시에 학교·병원·공공기관 급식, 온라인 유통, 수출, 가공식품까지 판로를 넓혀 어가 경영안정에 힘을 보태는 방침이다.

생산 증가에 비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이 직접 유통과 판매 지원에 나서 수산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부는 지난 17일 본부 주차장에서 '2026년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농협 광주본부

도심 한복판서 농민·소비자 직접 만난다

농협 광주본부, 금요직거래장터 개장...농특산물 최대 30% 할인

농협 광주본부부가 도심 속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상생 모델을 본격 개설했다.

농협 광주본부부는 지난 17일 본부 주차장에서 '2026년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관내 15개 농·축협 조합장과 농협 계통 사무소장, 김영문 광주시 부시장, 문명자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정숙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장, 천익출 우리밀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은 이른 오전부터 장터를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갓 수확한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 등이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장바구니를 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 가격을 낮추고 신선도를 높인 '직거래'의 장점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개장 기념 행사로는 인절미 커팅쇼와 나눔 행사가 진행돼 우리쌀 소비 촉진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행운의 룰렛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이 운영되며 장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N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판' 광주팀이 행사 운영을 도우며 눈길을 끌었다. 봉사단은 현장 안내와 이벤트 진

행, 기부제 홍보 등을 맡아 장터 곳곳에서 활력을 더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금요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는 공간"이라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터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요직거래장터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농협 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열린다. 다만 폭염이 예상되는 7~8월에는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 농협 측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 장터를 운영해 먹거리와 체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심천심 바탕 수출능가 적극 지원"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전남본부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20여명과 민순희 전남도 국제협력지원관, 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결산을 보고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 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나주 배원농협이 4년 연속 '1000만 달러 수

출 달성팀'을, 두원농협이 3년 연속 같은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로 평가된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협의회 조합장과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농심천심'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능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농협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개혁 추진단, 3개분과 구성...2단계 논의 착수

6월까지 분과별 논의 진행 후 2단계 개혁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존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개혁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과 4월 1일 당장 협의의 통해 발표된 내부통제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1단계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최근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 구성도 농협뿐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으로 확대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가능 확대, 도농 공동사업 및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조합원 소득 증대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는 품목조합과 지역축협의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조합 규모화와 건전성 제고, 연합사업 활성화, 농촌 기여 확대 등 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율리 여성·청년 이사 확대와 상임이사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등으로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농협 지배구조 분과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주체계를 재평가하고, 중앙회의 자금 지원 및 지도 권한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방안, 이사회 구조 개편 등 조직 전반의 지배구조 재정립 방안을 검토한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분과 중심 논의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오는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단계 농업개혁을 통해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지원

신규·리뉴얼 개발·마케팅 분야...내달 7일까지 접수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디자인 역량이 부족한 제조업(식품·공예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호, 제품, 포장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을 일괄 지원해 제품 혁신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지원 분야는 신규 브랜드 개발 5개사, 리뉴얼 브랜드 개발 8개사, 기존 지원기업 대상 국내외 마케팅 지원 5개사 등 총 3개 분야 18개사다.

참여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5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박정렬 기자 holbu1@gwangnam.co.kr



전남도가 지원해 개발된 소상공인 제품 디자인.

모집 대상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문디자인 업체 148개소를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지원을 지속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디자인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1@gwangnam.co.kr



농협 무안군지부는 영암군지부, 목포신안군지부와 함께 3개 시·군 합동으로 최근 무안군 청계면 일원에서 영농발대식과 조성 양파 수확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무안·영암·목포신안군지부, 영농발대식

농협 무안군지부는 영암군지부, 목포신안군지부와 함께 3개 시·군 합동으로 최근 무안군 청계면 일원에서 영농발대식과 조성 양파 수확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양파 수확과 선별, 정리 작업 등을 도우며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일손돕기 이후에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 양파 구매'와 '무안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최평강 농협 무안군지부장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aT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사업' 참여 모집

기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등 경쟁 장기화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7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중등 또는 중등 경유 수출 실적과 신선포수 수출 여부 등을 고려해 기업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총 600개 내외의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기업이 겪는 다

양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수출 기반 조성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 개척 등 총 23개 항목 가운데 필요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업은 사업 수행 후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중등 지역 정세 약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운송 지연 등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긴급 무역 현안 대응" 항목에는 중등 우회 운송 비용, 수출 화물 반송 비용, 현지 체류 지원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